

전남 인구유출 심각... 올해 9628명 나갔다

통계청 발표 '인구이동·인구동향'

전남 인구 순유출이 5개월 연속 지속되며 올해 들어 9628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데 달친 격으로 출생아 수 감소율은 두 자릿수대로 치솟았고 코로나 19 여파로 결혼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지역 순유출 인구는 광주 867명·전남 9628명 등 1만 4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도 광주 517명·전남 567명 등 1084명이 다른 사·도로 유출됐다. 전남은 지난 1월 3328명이 빠져나간 뒤 5개월 동안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전남 순유출 인구는 2월 2067명, 3월 2026명, 4월 1640명, 5월 567명 등 총 1

광주·전남 출생아 수 6085명 ... 지난해보다 11.1% 감소

코로나19 여파 1년 전보다 혼인 333건 감소 ... 이혼도 줄어 만명에 육박했다. 광주도 2월(-511명)과 3월(-447명) 순유출이 일어난 뒤 지난 4월 388명 순유출을 기록하고 5월 또다시 순유출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1만1298명), 강원(1150명), 충북(242명) 등 6개 사·도는 순유출됐다. 반면 광주·전남 등 11개 사·도는 순유출이 일어났다. 최근 5월 한 달 동안 광주·전남 지역 출생아 수 감소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지역 출생아 수는 광주

2586명·전남 3499명 등 60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47명) 보다 11.1%(762명) 감소했다. 광주 1~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2924명에서 올해 2586명으로 줄며 11.5%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남은 3923명에서 3499명으로 줄며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의 비율인 조출생률은 지난 4월 광주 5.1명·전남 5.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5.6명) 보다 적었고 부산(4.6명), 전북·대구(각 5명), 대전(5.1명), 경북(5.2명)과 함께 하위권을 전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혼인 건수마저도 급감했다. 올해 1~4월 한 달 동안 지역 혼인 건수는 광주 1944건·전남 2419건 등 4363건으로 1년 전보다 7.1%(333건) 감소했다. 지난 4월 한 달 혼인 건수는 광주 391건·전남 500건 등 891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3%(266건) 급감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와 혼인 신고 일수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4월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시점이었던 만큼 예정됐던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신고 시점을 늦춘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1~4월 이혼 건수는 광주 803건·전남 1191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6%, 12.5% 감소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1.51 (+30.27)	↓ 금리(국고채 3년) 0.819 (-0.008)
↑ 코스닥 759.50 (+6.27)	↓ 환율(USD) 1199.40 (-9.40)

기아차, 4세대 카니발 디자인 공개 '웅장한 볼륨감'



기아자동차는 24일 4세대 카니발의 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기아차는 '웅장한 볼륨감'(Grand Volume)을 컨셉으로 전형적인 미니밴이 아닌, 강렬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신형 카니발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와 경계 없이 조화롭게 연결돼 고급스럽고 웅장한 인상을 줬고, 볼륨감을 더한 후드와 세련된 범퍼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측면부는 기존 카니발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요소를 적용했다. 전장 5155mm, 전폭 1995mm, 전고 1740mm의 크기로 기존 모델 대비 전장과 전폭은 각각 40mm, 10mm 늘어났다. 축거도 3090mm로 기존보다 30mm 늘어나면서 레그룸 공간이 넓어지는 등 내부 공간 활용성도 높였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연결성을 바탕으로 넓고 웅장한 모습을 표현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강렬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외장 디자인으로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고품격 감성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특례보증대출 2만원 대량 연체 가능성 우려

코로나19 확산 이후 5개월 동안 광주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에 2만원 가까이 물리면서 향후 대량 연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3일 개최한 지역경제포럼에 담겼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관련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일선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장과 천경필 광주신용보증재단 부부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이상호 전남대 교수,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재호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감중식 한은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이 토론했다. 정 센터장은 "포용금융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및 마케팅·세무·상권분석 등 무료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신용관리서비스를 통해 제2금융권·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이 24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자체 캐릭터 'KJBears'(BEARS)를 공개하고 생활밀착형 홍보계획을 발표했다. 뒷줄 왼쪽부터 이성욱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송중욱 행장, 송현 상임감사위원.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캐릭터 'KJBears' 공개 ... SNS 활용 생활밀착형 홍보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24일 자체 캐릭터 'KJBears'(BEARS)를 공개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계획을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날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캐릭터 'KJBears' 옹이·달이·단지 출시 행사를 열고 홍보 전략을 발표했다. 꿈 세 마리를 본뜬 '옹이·달이·단지'는 광주은행 이미지에 친근함을 더했다. 광주은행은 이 캐릭터를 각종 금융상품과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메신저 이모티콘, 캐릭터 인형 등 고객을 위한 굿즈(상품) 제작에

도 쓰인다. 광주은행은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사의 각종 정보, 행사, 신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4번째 활동을 시작한 '특목 자문단'이 낸 고객 의견은 은행 경영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지출비용의 10%를 돌려받는 '멍이냥이카드'는 출시 3주 만에 가입자 1000명을 돌파했다. 이 카드에는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넣을 수 있어 고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행장은 "고객중심·지역밀착경영으로

항상 고객의 가장 가까이에서 인생의 동반자, 금융 파트너가 되고자 다방면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품과 개발 등 금융서비스부터 사회공헌활동까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을 넘어서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광주은행 캐릭터를 선보이는 것도 금융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고객에 친근하게 다가가 보다 더 행복한 금융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업계 '긴장'

미국이 한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국내 타이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4일 금호타이어 등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 등은 지난달 13일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절차상 ITC가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해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무부로 조사를 넘긴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타이어 덤핑 마진이 43~1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21~116%, 태국은 106~217.5%, 베트남은 5~22%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산 타이어는 지난해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 점유율 3위다. 태국이 1위(17%)이고 이어 멕시코(12%), 한국(10%) 순이다. 전미철강노조는 2015년엔 중국산 타이어를 겨냥했다. 이후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평균 관세율 31%)가 부과됐고 중국산 수입이 급감했다. 당시 미국에서 중국산 타이어 수입액은 2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전미철강노조 등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우회 접근하기 위해 한국과 태국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산 타이어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산 타이어들과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준비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